

순종의 꽃

강 난 경(소설가)

“원 세상에! 당신같이 대찬 여자를 어느 남자가 데리고 살겠어? 내나 되니까 그냥 꼭참고 사는 거지.”

“흥! 적반하장이라 더니, 당신같이 자기 주장만 옳다는 남자도 세상에 드물걸요. 제가 어쩔 수 없어 그냥 견디니까....”

국 참는다는 남편 말도, 그냥 견딘다는 제 말도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둘 다 성격이 너무 강하고, 매우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쓸데없는 자존심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래서 젊었던 시절엔 자주 번갯불이 번쩍거렸습니다. 마흔이 넘어 예수를 영접한 후엔 싸움에 성격이 인용되었습니다.

“성경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교회 가서 뭘 배웠어?”

“아니, 당신 성격은 찢어져서 그 다음 구절은 못 봤나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했는데 당신은 한번이나 그렇게 해봤어요?”

“이 사람아 복종을 해야 사랑을 해주지.”

“당신이 날 사랑만 해보세요.”

“자네가 먼저 복종하는 시늉이라도 해봐!”

“당신이 먼저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보세요!”

복종과 사랑의 줄다리기는 계란과 병아리의 전후다툼처럼 끝이 없는 싸움이었지요. 그러면서 오십이 된 우리 부부는 이제 줄다리를 할 기운도 없어졌습니다. 장로가 된 남편의 서리 내린 머리칼은 제 눈을 연민에 젖게 했고, 위아래가 평평해진 집사의 표본형이 된 저는 남편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소원대로 매사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 계속 차오던 돈주머니를 남편에게 채워 줬어요. 이제까지 돈을 벌기만 했지, 써 보지는 못했던 남편은 돈이 아까워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뻗뻗하던 제가 갑자기 고분고분 순종을 하니깐 좀 간지럽기는 해도, 뒤통사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 모양입니다. 그는 물건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를 샀어요. 물론 제 마음에 들 리가 없었지요.

“그런 싸구려야 필요 없어요. 디자인도 촌스럽구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꿀꺽 삼킨 저는 기뻐하며 고맙게 받았습니다. 남편은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했어요. 이것저것 저의 선물 사기에 바빴어요. 저는 계속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광고면에 계속)

교회 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이 천년 교회생활' '주일에서 매일중심 신앙'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 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에
제 2권 4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0년 10월 29일
☎269-867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내가 교회가 싫은 이유>

기독교인들은 인간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

Q)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술 먹고 호형호제하는 재미가 교인들에게서는 없어 별로 재미를 못 느꼈습니다.

A) 교인들과의 친교에 '화끈하게 소주 한 잔' 같은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귀하의 말처럼 재미가 없나보죠? 경험에 의하면 교인들은 과격한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던가 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면서 삽니다. 그들은 매사에 생각이나 판단을 인간적인 데 근거하지 않고 성경말씀에 기준을 두고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늘 온유한 마음씨로 자중자애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입니다.

즉 자극적인 시대문화를 즐기기도는 경건과 온건으로 좀도 값진 정신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늘 조용히 추구합니다. 노래를 불러도 몸을 흔들기에 적합한 신나는 팝송이나 유행가보다는 조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재미가 하나도 없겠지요.

술기운을 빌려 나누는 대화라는 게 대개는 과격할 말로 누구를 헐뜯거나 정치체제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중에 쌓인 감정의 찌꺼기를 쏟아 내버리는 데는 다소 효과가 있겠지요. 실제로 정신건강을 위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남에 대한 불평 후에 부산물로 떠오르는 공허감이나 자괴감도 그냥 만만히 볼 것은 아닙니다.

친구관계도 벽을 허물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반드시 후유증과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친교에서도 성경의 가르침과 그에 따른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이 교회의 친교에 들어가 보세요. 피와 목숨까지도 바칠 만한 혼신의 아름다움과 생명이 깃든 인간미의 진정한 관계를 그 안에서 기필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재미는 못 구할지 모르지만 대신 사랑의 참된 의미를 그 안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0 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7 (시 16편 )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65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한은영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전서 5:9-13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먼저 버릴 것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04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 10.11월 예배 위원 >

일 자	헌금위원	기 도	teatime봉사
29일	김효권.이영주	한 은 영	이영권.지윤수
11/5일	김시욱.장선주	김 영 길	최윤희. 한 건
12	이선우.조순정	조 순 정	김성국.변지용
19일	지윤수.김 효	노 은 숙	이경석.이선우
26일	김교섭.정희자	송 정 섭	김교섭.김효권

'이천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사항> *개인과 가정:매일 1/2성경읽기, 가정예배 *교 회:화요새벽기도회 *선 교:결식아동 3배지원, 해외선교지원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일예배 1:30 pm	수요예배 7:30pm(ST.Stephens)	화요새벽기도: 6:00
--------------	--------------------------	--------------

### 교 회 소 식

#### 1.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다음주일에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10월 현재: 창세기 9명 출애굽기:4명 레위기:2명

#### 2. 장년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3기)

\*일시: 10월 31(화) 저녁 7:30

\*장소: 교회

\*대상: 등록번호 10번 이후부터(김시욱.장선주.김교섭.정희자.김종암.한은섭.  
김영길.신경화.이정수.최재학.노은숙)

#### 3.오늘은 사랑의 실천'이삭줍기'를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 4."Christmas in Calvary"을 위한 성가대 칸타타 연습: 금주부터 시작합니다.

\*매 금요일 저녁 7:30 \*장소: Adria

#### 5. '약속의 아비': 성가연습전 30분간 기도회(7시)

#### 6. 교우소식:\* 김교섭 장로, 정희자 집사 한국방문. 지난 22일 출국.

\*최재학 집사. 한국방문중.

#### 7.11월의 교회력

\*7.14.21(화)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

\*3일 이후(매 금요일).칸타타 연습

\*19(주일) 감사주일

\*\*\*\*\*

(나의 삶,나의 하나님 계속)

사실이지 제 자신이 몇 십만원짜리를 사서 가질 때보다는 남편이 몇만원짜리를 사주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과정에서 저는 정말로 남편에게 순종하게 됐어요.

그 결과 저는 남편의 진실한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늦게 행복한 부부가 되었답니다. 인생 반백 년을 살고야 '순종의 뜻은 사랑'이란 걸 알았으니 저는 얼마나 늦둥입니까.